

근대 동아시아 탐정소설과 청년 탐정의 탄생*

박은혜** · 박민호***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청년 탐정의 권태와 불안
3. '딜레탕트'(dilettante)적 탐정의 등장
4. 식민 상황이 초래한 정체성의 해체
5. 나오는 말

국문초록

‘청년’과 ‘탐정’은 국민국가의 근대적 주체로 이미지화된 존재이자, 근대적 주체의 형성을 위한 과학적·합리적 사고의 모델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각국이 처한 시대적 상황은 작가들로 하여금 탐정을 그와 같은 단순하고 평면적인 인물이 아닌 입체적이고 다채로운 인물로 그려내도록 이끌었다. 이에 따라 한중일 삼국에서 등장한 ‘청년 탐정’들은 ‘탐정’ 특유의 합리적·과학적·실증적 사고와 태도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해당 시대와 사회의 상황이나 분위기를 반영하여 이중적이고 복잡한 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탐정소설의 창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1920·30년대로, 일본의 에도가와 란포와 중국의 루단안, 식민지 조선의 채만식, 김내성 등은 이중적이고 복잡한 성격을 띤 ‘청년 탐정’ 인물을 작품 속에 등장시켰다. 그들에게 탐정 활동은 여전히 과학과 이성에 근거한 근대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동기는 국가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5S1A6B5A02004116)

**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차이나연구소 HK연구교수

*** 경상국립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의 호명에 부응하기보다는 그것을 위반하거나 넘어서는 요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각국의 독특성에 주목해보자면, 그러한 요소들은 란포의 작품에서 권태와 불안의 심리로, 루단안의 작품에서 유희와 일상화로, 채만식과 김내성의 소설에서는 무기력과 자포자기적 자기해체로 나타난다.

키워드: 동아시아, 탐정소설, 청년 탐정, 근대성, 계몽, 식민

1. 들어가는 말

근대 동아시아에서 탐정소설은 심심풀이와 오락을 위한 독서물로 그치지 않았다. ‘문명인’으로서 마땅히 습득하고 갖춰야 할 과학적 지식과 논리적 사고를 접할 수 있는 매개체였다. 중국 지식인들은 탐정소설을 ‘계몽과 과학의 교과서’라고 여겼고, 조선 지식인들도 탐정소설이 “과학적 지식을 학자가 구술이나 문자를 빌려서 저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상 깊게 선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¹⁾ 19세기 말 동아시아에 첫발을 디었던 서구 탐정소설 역시 이성과 합리성으로 무장한 근대적 주체로 수용되었다. 설록 홈스와 같은 상류계급 탐정은 “과학적 지식과 측정, 관찰로 대표되는 근대 서구문명의 총아”였다.²⁾

한편 근대 동아시아에서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청년(靑年)’ 개념 역시 비슷한 시기 서구로부터 유입되었다. 서구에서 ‘청년’과 ‘청년기’를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적 단계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8세기 이후였다. 특히 19세기 중반 학교제도가 발전하면서, ‘청년’은 성인이 되기 전 필요한 능력을 함양해야 하는 유예의 시기로 정의됐다. 이러한 청년 인식은 “근대 국가가 학교제도를 통해 (중략) 젊은 인민을 장악하기 위해 필수적이었”으며, “근대 초기에 폭발적으로 발산됐던 젊은이의 폭력성을 체제 내로 끌어들이는 데 중

1) 송인정, 「탐정소설론」(1993), 조성면 편, 『한국 근대대중소설 비평론』, 태화사, 1997, 131쪽.

2) 계정민 지음, 『범죄소설의 계보학』, 고양: 소나무, 2018년, 130쪽.

요하게 작용했다.³⁾ 즉 국가는 ‘바리케이트 위의 젊은이’를 ‘내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로 탈바꿈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세기 중엽부터 유럽에 민족주의, 낭만주의 사조가 유행하며 청년은 발전과 혁신을 표상하는 혁명의 세대로 재등장한다.

메이지 시기 일본 지식인들은 이러한 서구의 청년상과 연령 구분을 도입했다. 일본에서 ‘젊은이’를 지칭하는 개념들은 근대 이전 다양하게 존재했지만, 1880년 ‘YMCA’를 ‘기독교청년회(基督教青年會)’로 번역한 이래 ‘세이넨(靑年)’은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이전의 것들을 압도하면서 굳건히 자리를 잡았다. 즉 ‘세이넨’은 ‘소시(壯士, 무퇴한·깡패)’와 대비되는 ‘자기상(自己像)’을 지니게 된 것이다. 여기서 ‘소시’는 “정치적 폭력성과 격정적인 행동 양태”를 지닌 이들로, “예측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근대적 인간형”인 세이넨과 뚜렷한 차별성을 띠게 된다. 근대 일본은 서구와 유사하게 ‘청년’ 개념을 통해 젊은이들을 ‘생산적’인 근대적 주체로 탈바꿈시키고자 했던 것이다.⁴⁾

이후 일본을 통해 조선과 중국에도 근대적 ‘청년’ 개념이 유입되었다. 조선의 경우, 이 용어는 1900년대 전후 주로 기독교 청년 단체를 중심으로 사용되다가 1905년 이후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청년 개념의 정의나 청년 교육보다는 ‘청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당위 문제가 더 중요했다.⁵⁾ 즉 조선에서 청년 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진행’의 문제였던 것이다.

근대 중국에서도 청년은 시대의 과제를 수행해야 할 주체로 호명되었다. 량치차오(梁啓超)는 “우리 청년이 바로 한 나라의 장래의 주인”이며, “난세는 청년을 사랑한다”⁶⁾고 말했고, 천두슈(陳獨秀)는 『청년잡지(靑年雜誌)』

3) 이기훈 지음, 『청년아 우리 청년아—근대, 청년을 호명하다』, 파주: 돌베개, 2014년, 45-46쪽.

4) 위의 책, 47-48쪽.

5) 소영현, 「청년과 근대—『少年』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6권 11호, 2005년, 42쪽.

6) 송인재, 「초기 『신청년』에서 전개된 청년 담론의 기원과 성격」, 『인문과학』 제45집, 59쪽.

창간호에서 청년을 초봄과 아침해, 그리고 막 솟들에 갈려 나온 예리한 칼에 비유하며, 청년이 중국 사회의 진부하고 썩은 것들을 방출하고 신선하고 활발한 세포를 제조하는 신진대사의 역할을 담당하기를 희망한다.⁷⁾ 종합하면, 근대 동아시아에서 ‘청년’은 장차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길러야 하는 역할과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임무를 떠맡았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 ‘탐정’과 ‘청년’에게는 공통된 시대적 의미망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두가지가 결합된 ‘청년 탐정’ 개념은 근대적 주체로서의 역할과 사명이 보다 극대화된 형태로 정립되어야 했다. 그러나 각 지역의 시대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청년 탐정’에 요구되는 역할에는 일정한 특수성이 존재했다. 이 시기 한중일 작가들은 근대 국민국가 이데올로기가 지식인들에게 요구하는 시대적 과업에 전적으로 자신을 가두거나 얽매이지 않고 시대 흐름과 사회의 조건에 따라 다채로운 창작 시도를 보인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동아시아 삼국의 근대 탐정소설 속 ‘청년 탐정’이 재현되는 양상을 분석하여, 각기 다른 사회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국가 이데올로기의 요구에 부합하여 근대적 주체 형성에 기여하는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넘어서거나 위반하며 시대와 사회의 성격을 반영하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 다룬 작가는 일본의 에도가와 란포(平井太郎, 이하 ‘란포’), 중국의 청샤오칭(程小青)과 루단안(陸澹安), 그리고 식민지 조선의 채만식과 김내성 등이다. 이들은 공히 동아시아 각국에서 탐정소설 장르의 기초를 다진 작가들로서, 서구 탐정소설을 모방하여 ‘이성’과 ‘실증’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탐정 모델을 제시하면서도, 저마다 당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과 분위기를 작품 안에 녹여내 뚜렷한 개성과 특징을 보인다.

7) 천두슈·후스 외 지음, 김수연 편역, 『신청년의 신문학론』, 파주: 한길사, 2012년, 13쪽.

2. 청년 탐정의 권태와 불안

근대 일본의 탐정소설과 청년을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잡지가 바로 『신청년(新靑年)』이다. 일본의 탐정소설은 구로이와 루이코(黒岩淚香)의 번안 시기를 지나, 1920년대에 접어들며 본격적으로 창작 시기에 이른다. 이 때 신문과 잡지에 연재되는 탐정소설이 늘었는데, 그 중심에 바로 1920년 1월에 창간된 『신청년』이 있었다. 『신청년』은 ‘흥미를 중심으로 하는 유익한 청년 잡지’를 표방하며 탐정소설, 모험소설, 과학소설 등 여러 장르의 소설을 실었다. 그중 창간호 편집장이었던 모리시타 우손(森下雨村)은 새로운 청년들에게 유익하면서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장르로 탐정소설 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신청년』은 탐정소설 특집호 발간사에서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평론가인 체스터턴(G. K. Chesterton)을 인용한다. 체스터턴의 말에 따르면 탐정소설은 신사가 애독하는 소설이며, 훌륭한 탐정소설은 결코 저급한 읽을 거리에 불과하지 않다. 좋은 탐정소설을 읽는 것은 고상한 취미 행위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해 좋은 탐정소설을 제공해야 한다.

『신청년』의 창간 취지에 호응하듯, 당시 『신청년』에 대한 일본 청년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발행 부수가 평균 3만 부 이상이었고, 독자들이 출판사로 보낸 편지가 수만 통이 될 정도였다. 탐정소설을 둘러싼 논의들도 『신청년』 독자 투고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신청년』에 탐정소설이 유독 많은 것은 불공평하다거나, 청년에게 탐정소설보다 문예 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탐정소설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력을 길러 주고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넓은 시야를 제공한다는 의견도 있었다.⁸⁾ 독자 투고란은 탐정소설 독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보여준다. 즉 그들은 높은 장르적 완성도와 다양한 소재를 중시했고 그것을 요청했다. 『신청년』의 독자들, 즉 근대 교육을 받은 독

8) 池田智恵, 「1920年代における探偵小説創作の黎明—近代中國と日本の「雑誌空間」を通じ」, 『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 第4号, 2011. 3, 264-265쪽.

서인으로서의 청년들에게 탐정소설은 단순한 흥미와 오락 뿐 아니라 지적 만족감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던 것이다.

이 시기 『신청년』에 창작 탐정소설을 실었던 대표적인 작가로 란포를 꼽을 수 있다. 란포가 『신청년』에 실은 작품들 중 「D언덕의 살인사건(D坂の殺人事件)」과 「다락방의 산책자(屋根裏の散歩者)」에는 청년 탐정 아케치 고고로(明智小五郎)가 등장한다. 란포의 초기 단편에는 “일상생활을 주체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자주 등장”⁹⁾한다. 「다락방의 산책자」의 등장인물인 고다 사부로(郷田三郎)가 그 예다. 그는 부모가 송금한 돈으로 아무런 불편 없이 도시생활을 하는 젊은이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직업도 없고 피하는 일이 없어 무료함을 토로하는, ‘고등 유민’, ‘고등 실업자’였다. 따분함을 견디지 못한 그는 자신이 머무는 하숙집 천장 다락방을 통해 하숙집 각 방에 거주하는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관찰하는 ‘관음증’을 나타낸다. 그러던 중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엔도의 방 천장에서 낮잠을 자는 엔도를 발견하고, 그의 벌어진 입으로 천천히 독약을 떨어뜨려 살해하는 ‘완전범죄’를 실행에 옮긴다. 그러나 고다 사부로의 친구였던 청년 탐정 아케치 고고로는 사건 전후에 나타난 고다 사부로의 심리적 변화와 엔도의 시신 주위 현장에 대한 물리적 정황 등을 통해 고다 사부로의 범죄 전모를 밝혀낸다.

이러한 서사는 동시대 일본 청년과 사회 현실에 대한 작가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 작품이 쓰인 1925년은 흔히 ‘다이쇼 데모크라시(大正デモクラシ, 1911-1925)’라 불리던, 근대 일본에서 자유와 민권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그것이 일부 제도적 진전으로 이어졌던 시기의 끝자락이다. 이 무렵 러시아 혁명(1917)의 영향으로 일본 내 사회주의 이념이 확산되고 지식인과 노동자들의 좌익 운동이 점차 급진화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억누르기 위해 1925년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지식인과 노동자들의 좌익 운동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한 이 시기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와

9) 마쓰야마 이와오 지음, 김지선 외 옮김, 『란포와 도쿄』, 서울: 케포이북스, 2019년.

간토대지진(關東大地震, 1923) 이후의 도시 재건을 통해 급격한 자본 팽창과 산업화·도시화를 경험했고, 이러한 물질적 변화는 도시 청년들에게 권태와 불안, 세속적 욕망을 부추겼다. 이 때 형성된 도시의 ‘신풍속’은 “빌딩이나 자동차의 범람으로 상징되는 기계주의와 활동사진으로 카페로 상징되는 도시주의의 일상화였고, 이러한 신풍속은 이 시기부터 현저히 거대화된 매스커뮤니케이션을 매개로 일본인의 의식 전체를 엄청난 기세로 바꾸어 나갔다.”¹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창조된 고다 사부로라는 인물은 한 편으로 근대 일본의 풍요로움 이면에 깃들여 있던 도시 청년의 권태와 불안, 그리고 여기서 형성된 변태 심리와 충동을 잘 보여준다. 작가는 ‘탐정소설’이라는 장르 형식으로 당시 일본 도시 사회의 기형적 일면을 절묘하게 포착하면서 비판적 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고다 사부로는 일본이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기획한 청년의 주체화 이데올로기에 부합하지 않는 ‘잉여’이자 불쾌한 ‘타자’이다. 그렇다면, 아케치 고고로는 고다 사부로와 대비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위의 두 편 작품에 등장하는 아케치 고고로는 국가의 미래를 짊어진 건설한 청년이기보다는 고다 사부로와 마찬가지로 ‘담배 가게 2층 골방’의 책더미에 파묻혀 하릴 없이 시간을 때우는 오늘날의 히키코모리(引きこもり) 같은 인물로 그려진다.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자.

나는 자네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을 거야. 다만 내 판단이 맞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지. 알다시피 나의 관심사는 오직 진실이 무엇인지거든. 그 이상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게다가 이 범죄엔 증거도 없으니까.¹¹⁾

위의 인용문은 아케치 고고로가 날카로운 추리력으로 고다 사부로의 범행을 증명한 뒤 그에게 던지는 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란포의 청년 탐정 아

10) 이에나가 사부로 엮음, 『근대 일본 사상사』, 서울: 소명출판, 2006, 295쪽.

11) 에도가와 란포 지음, 『아케치 : D언덕 살인사건[e-book]』, 프리디우스, 2025년, 133쪽.

케치 고고로에게 중요한 것이 범인을 경찰에게 넘겨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다. 즉 그가 범죄 현장을 치밀하게 관찰하고 범행의 진실을 밝혀내고자 애쓰는 것은, 전통적인 ‘권선징악(勸善懲惡)’을 위해서도, 국가 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청년상의 실현을 위해서도 아니다. 범죄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치안을 안정시키고 사법 체계를 확고히 하는 공리적인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진실이 무엇인지 아는 것’, 자신이 수립한 가설을 사실로 확인하는 것 뿐으로, 그에게 그것은 단순히 무의미하고 권태로운 일상을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란포의 소설 속 ‘청년 범인’과 ‘청년 탐정’은 서로 대립되는 듯하면서도 동일한 성격을 공유하는 듯하다. 그들에게 ‘범죄’ 행위와 이를 밝히는 ‘탐정’ 행위는 모두 세계의 무의미와 권태, 불안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이형동질(異形同質)의 구조 위에서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딜레탕트(dilettante)’ 적 탐정의 등장

근대 중국을 대표하는 탐정으로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청샤오칭의 탐정소설에 빠짐 없이 등장하는 휘쌍(霍桑)을 꼽을 수 있다. 청샤오칭은 “중국 문단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탐정소설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탐정 소설 이론 연구에도 힘을 쏟”은 인물이었다.¹²⁾ 휘쌍은 아서 코난 도일(Arthur Conan Doyle)이 1877년부터 1927년까지 창작한 60편에 이르는 소설 속 인물 셉록 홈스(Sherlock Holmes)의 오마주(hommage)로 당대 중국 탐정소설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¹³⁾

12) 范伯群, 『中國近現代通俗文學史』(上卷), 南京:江蘇教育出版社, 2010년, 642쪽.
박은혜, 「청샤오칭(程小青)의 탐정소설론 연구」, 『중국학연구』 제76집, 2016, 63쪽 재인용.

13) 중국에 서구 탐정소설이 처음으로 유입된 것은 1896년 『시무보(時務報)』에 셉록 홈스 시리즈 중 4편의 소설이 소개된 때부터이다. 서세동점의 상황에서 중화민족의 부흥을

청샤오칭의 ‘휘쌍 시리즈’는 20여 년 동안 이어지지만, 휘쌍의 연령에 관한 내용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초기작이라고 해서 젊은 시절 휘쌍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청샤오칭은 「휘쌍의 어린시절(霍桑的童年)」이라는 작품에서 그가 어린 시절부터 탐구열과 모험심이 남달랐다고 서술하였고, 청년기에는 약자의 고통에 민감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며 실용적·실증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한다.¹⁴⁾ 또 청년 탐정으로서의 구체적인 활약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휘쌍은 사고 모임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방종한 지식인 청년들을 두고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며 나무라기도 한다.

그렇다면 휘쌍 자신은 어떤 이유로 탐정 일을 하는 것일까?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도, 오락과 재미를 위해서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에게 범죄 수사는 불쌍한 동포들을 도와주고, 정의를 실현하며, 사법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수단 중 하나였다.¹⁵⁾ 또 그는 철저히 ‘과학’과 ‘합리성’에 기반을 둔 범죄 수사를 고집한다. 그는 “예리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증거와 단서를 수집하며 이러한 태도가 과학 수사의 기본임을 누차 강조”한다.¹⁶⁾ 이처럼 청샤오칭의 필묵 아래서 재창조된 휘쌍은 근대 중국에서 청년에게 부여된 역사적, 민족적 사명과 합리주의적 계몽의 임무를 충실히 반영한

피하기 위해 량치차오(梁啟超)와 황윈센(黃遵憲) 등에 의해 창간된 『시무보』는 처음에는 서구 탐정소설을 통해 중국 대중에게 과학과 합리적 사고를 이식함으로써 중국을 근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빠르게 퇴조하였고, 중국의 대다수 근대 지식인들에게 탐정소설에 대한 관심은 급속히 사그라들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박은혜·박민호, 「중국의 설록 홈스 시리즈 수용과 청샤오칭 탐정소설 속 ‘휘쌍’ 캐릭터 연구」, 『중국문학연구』, 2017. 5, 90-91쪽 참조.

14) 박은혜·박민호, 위의 글, 99쪽.

15) 「휘쌍의 어린시절」에서 휘쌍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문은 개인의 출세 수단이 아니다. 학문의 목적은 개인의 이익 뿐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복리여야 한다. 백 년이 넘게 우리나라는 타인으로부터 모욕과 압제를 받아 왔다. 부흥과 자강의 희망은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 만약 청년들이 무지몽매하여 교육을 받고도 개인주의에만 눈을 돌린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中國現代文學館 編, 〈霍桑的童年〉, 《程小青代表作: 血手印》, 北京: 華夏出版社, 2011, 263쪽. 박은혜·박민호, 위의 글, 99쪽 재인용.

16) 박은혜·박민호, 위의 글, 97쪽.

탐정이었다.

그렇다면 근대 중국의 탐정소설 중에 명실상부 ‘청년 탐정’이라 할 만한 캐릭터에는 누가 있을까? 아마도 루단안이 1923년부터 1933년까지 발표한 시리즈의 주인공 리페이(李飛)를 첫 번째로 꼽아야 할 것이다. 루단안의 리페이 시리즈 첫 번째 작품에서 17세의 학생으로 등장하는 리페이는, 동방대학(東方大學)에 입학하여 대학생이 된 후 본격적으로 탐정 활동을 시작한다. 휘쌍을 비롯한 중국의 탐정들처럼 리페이 역시 근대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애쓴다. 「오래된 탑의 외로운 죄수(古塔孤囚)」에서 리페이는 자신의 아내에게 본인이 탐정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설명한다.

사건을 조사하는 일이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해요. 하지만 감춰진 범행을 밝혀내고 나면 정신적으로 매우 기쁩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나쁜 놈들의 수작에 걸려드는 것을 막을 수도 있으니, 내가 탐정 일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을 얻게 된 이상 이런 일에 앞장서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괜한 일에 참견하다고 할 수는 없지요!¹⁷⁾

위의 인용문을 통해, 리페이가 탐정 활동을 기본적으로 ‘놀이’, ‘유희’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게 ‘사건을 조사하는 일’은 본인이 공부하고 취득한 ‘탐정학’의 이론과 경험을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정신적 만족감을 얻게 해주는 활동이다. 위 인용문을 자세히 보면, ‘나쁜 놈들의 수작’을 간파하여 선량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거기에 덧붙는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리페이의 그러한 성격은 이 작품에서 리페이가 두세 달 동안 아무 사건도 발생하지 않으면 손발이 근질거리고, 재능을 발휘해 멋지게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아내에게 뽐내고 싶어하는 탐정으로 묘사된다는 점에서도 뚜렷히 나타난다.

그러한 인물 성향은 1923년 작인 「담배 소동(烟波)」에서도 잘 드러난다. 「담배 소동」에서 리페이는 동네 가게에서 판매하는 담배갑에 담배 대신 톱

17) 陸澹安 著, 『李飛探案集』, 北京: 北京聯合出版公司, 2021年, 168쪽.

밥을 채워 넣은 범인이 누구인지 탐색한다. 당시 중국에선 외국산 담배와 국산 담배가 경쟁 중이었는데, 동네 가게에서 판매하는 담배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톱밥으로 채워진 담배들은 모두 국산 담배 회사인 진화(振華)의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리페이는 굳이 자신이 나서서 규명하지 않아도 될 일임에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건을 끈질기게 탐구한다. 그 결과 진화 브랜드의 담배 일부에 톱밥을 넣은 이는 외국산 담배 판매상의 친척인 다른 담배 가게 주인 임이 밝혀진다. 이들은 외국 담배 회사의 스파이로, 진화 제품이 시중에서 인기를 끌자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그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담배 소동」은 당시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벌어지던 민족기업과 매관 기업 간의 경쟁을 다룬, 농후한 민족주의적 색채를 띤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리페이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개인적인 사건을 끝까지 파고들어 민족 자본을 파괴하기 위한 매관 자본의 부도덕성을 밝혀낸다. 이러한 작품 서사를 통해 작가는 진실을 파헤치는 지적 호기심과 탐구열이 민족 내지 국가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청년 탐정 리페이 자신이 청샤오칭의 휘쌍처럼 강한 민족주의와 계몽주의적 의지와 정념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선 리페이에게는 휘쌍에게서 볼 수 있는 진지함과 엄숙한 지식인 영웅으로서의 면모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또 그는 휘쌍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민족’, ‘정의’ 따위의 단어를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는 ‘담배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소설을 구상해야 할지 고민 중인 화자에게 의기양양한 태도로 “조금만 더 기다려요. 두 시간 쯤 뒤에는 당신도 알게 될 거니까. 매우 이상한 사건이니 훌륭한 소설 소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한다.¹⁸⁾ 이러한 리페이의 언행은 그의 탐정 활동 의도가 국가대사나 정의 문제와 직접 결부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비록 「담배 소동」이 민족주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작품 서사가 빚어낸 효과이지 리페이 자신이 의도했던 바는 아닌 것이다.

18) 陸澹安 著, 위의 책, 237쪽.

더불어 주목할 만한 점은, 휘쌍 시리즈와 달리 리페이 시리즈는 ‘살인’, ‘강도’와 같은 비일상적인 잔혹한 소재보다는 앞서 본 ‘담배 사건’이나 ‘유령의 출몰’(「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친 사람(隔窓人面)」), ‘문서의 유실’(「한밤중의 종소리(夜半鐘聲)」) 등 일상 속 평범한 소재들을 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즉 루단안의 스토리 소재는 대중에게 보다 친숙하고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1920·30년대 동아시아 금융자본주의와 대중문화의 대표 공간이었던 상하이의 면모를 환기시킨다. 즉 루단안에게서 중국 탐정소설은 정치와 계몽의 수단에서 상품으로서의 이야기로 전환되며, 작중 ‘청년 탐정’ 또한 사회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으려 하는 진지하고 엄숙한 시대 영웅이 아니라, 사건 이면의 진실에 대한 지적 호기심으로 충만한 딜레탕트(dilettante)적 소시민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4. 식민 상황이 초래한 정체성의 해체

식민지 조선에서 서구 탐정소설은 일본이나 중국보다 다소 늦은 192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이 시기 『조선일보(朝鮮日報)』, 『동아일보(東亞日報)』나 『개벽(開闢)』, 『청년(靑年)』 등에 셉록 홈스(Sherlock Holmes)와 아르센 뤼팽(Arsène Lupin) 시리즈가 소개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에서 탐정소설을 접한 유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작가와 독자층도 점차 확대된다.¹⁹⁾ 1930년대에는 김내성, 채만식 등이 장편 창작 탐정소설을 신문과 잡지에 연재하며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²⁰⁾

19) 한국근대문학관, 『한국의 탐정들』, 파주: 그린비, 2022년, 49쪽.

20) 1930년대 조선 문단에서 김내성의 지위는 자못 특별하다. 그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장편의 탐정소설 한 권이 간행되지 못한” 조선 문단에서 “조선 최초라 할 수 있는 장편 탐정소설을 창작함으로써 조선 문단의 ‘빈약성’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희경, 「‘상상된’ 탐정과 ‘정탐되는’ 식민도시의 민낯—김내성의 장편소설 『마인』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3권 4호, 2017년, 47쪽.

식민지 조선의 탐정들은 동아시아의 어느 탐정과 마찬가지로 범죄 수사에 있어 지문 감식, 화학 실험 등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그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탐정은 아니라는 점에서 독특한 면을 지닌다. 예를 들어 채만식의 『염마』, 김내성의 『마인』 속 탐정들은 “이지적인 판단력을 지닌 인물로 그려지는 것보다, 피해자 혹은 살인 용의자로 오해받고 있는 자와 연애, 우정, 의리와 같은 ‘감정’에 얽혀 있는 인물로 형성화”된다.²¹⁾

1934년 5월 16일부터 1934년 11월 5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채만식의 장편소설 『염마』의 주인공 백영호의 경우를 보자. 그는 부모도 처자식도 없는 27살의 미혼 탐정으로, 도쿄에서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지만 뚜렷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 그는 부모로부터 큰 유산을 물려받아 자가용 기사와 식모도 부릴 만큼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한다. 그는 평소 집에서 과학 서적을 읽거나 집안에 마련된 실험실에서 응용 화학과 전기에 관한 실험을 하며, 취미로 탐정 일을 하는 부르주아 탐정이다.

범죄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백영호의 집에 손님이 찾아온다. 그는 하숙집 주인으로, 어느날 하숙집에 머물던 손님이 사라지고 그의 방에서 잘린 손가락이 발견되자 백영호를 찾아온 것이다. 탐정 백영호의 활약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지만 뜻밖에도 범인은 소설 전반부에서 일찌감치 밝혀진다. 그리고 소설 후반부는 백영호가 추리를 통해 범인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매료시킨 여인을 납치한 범인과 대결을 펼치는 이야기로 채워진다. 추리는 어느새 뒷전으로 밀려나고, 백영호는 모험 활극에서 위험에 빠진 여주인공을 통쾌한 액션으로 구해내는 영웅으로 변모한다.

한국 근대 탐정소설의 대표 작가로 꼽히는 김내성의 탐정 유불란 역시 백영호 못지 않게 감정적이며 인간적 고뇌로 가득 찬 탐정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그 고뇌의 중심에는 ‘로맨스’가 있다. 파리의 괴도 아르센 뤼팽을 만든 프

21) 최애순, 「1930년대 탐정의 의미 규명과 탐정소설의 특성 연구」, 『동양학』 제24집, 2007년, 37쪽.

랑스 작가 모리스 르블랑(Maurice Leblanc)의 이름을 본떠 만든 유불란은 「가상범인」²²⁾이라는 작품에서 여주인과의 비극적인 로맨스를 보여준다.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한 복수에서 시작된 연쇄 살인과 살인 사건 조사 중 드러나는 출생의 비밀을 다룬 장편소설 『마인』에서도 유불란은 탐정의 임무와 연애 사이에서 고민하는 ‘유정(soft-boiled)’하면서도 나약한 인간으로 그려진다. 유불란은 “그렇다! 탐정이란 결코 연애를 해서는 아니 된다! 연애는 모든 사물을 정확히 내다보는 시력을 빼앗는 것이다!”²³⁾고 자책한다. 그는 ‘리얼리스트’여야 하는 탐정과 사건의 키를 쥐고 있지만 치명적 매력을 지닌 주은몽을 사랑하는 ‘로맨티스트’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유불란의 추리로 사건은 해결되지만, 소설 말미에 주은몽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유불란은 탐정 폐업을 선언한다.

이번 사건은 나에게 가장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나에게 탐정의 소질이 없다는 점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절대로 범죄사건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임 경부께 성명합니다. 탐정의 혈관에는 피가 순환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나는 비로소 깨달은 때문입니다. 탐정의 혈관에는 강철이 돌아야 합니다!²⁴⁾

유불란의 폐업 선언은 그가 인간적인 감정과 욕망을 무시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무장하여 사건의 진실을 좇는 ‘탐정 되기’를 포기하겠다는 고백이다. 이처럼 ‘청년 탐정’이 감정에 사로잡혀 일을 그르치고 탐정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박탈해 버리는 설정은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쉬이 발견하기 어려운 특징이다. 그렇다면 조선 탐정의 이러한 특징은 어떤 배경에서 유래한 것일까?

22) 이 소설은 김내성이 일본에서 발표한 「탐정소설가의 살인」의 제목과 내용을 고쳐 1937년 조선일보에 한글로 다시 발표한 작품이다. 원작에서는 유불란의 연애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는데, 한글로 고치면서 유불란의 로맨스가 더해졌다. 관련 내용은 한국근대문학관, 『한국의 탐정들』, 파주: 그린비, 2022년, 78쪽 참조.

23) 김내성, 「마인」, 『김내성문학전집 1[e-book]』, 누리미디어, 2015년, 213쪽.

24) 김내성, 앞의 책, 302쪽

그와 같은 탐정 형상의 기원에 대해 우리는 응당 당시 조선의 식민 현실을 떠올리게 된다. 채만식의 백영호나 김내성의 유불란이 살던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은 일제가 세계 대공황의 암운(暗雲)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국제연맹으로부터 탈퇴하는 등 대륙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꾀하던 시기로, 식민지 조선 청년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억압적인 정치 상황을 마주해야 했다. 조선의 탐정소설 작가들은 이런 시기에 ‘탐정’이라는 존재가 직면한 역설적 처지를 누구보다 깊이 자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에 채만식과 김내성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청년 탐정’들은 기존의 탐정 서사의 문법으로 비춰볼 때 어딘가 우울하고 무기력한 정서를 내포한다. 그들의 ‘지식’과 ‘기지’가 탐정 활동 속에서 멋지게 발휘되는 순간 합리성과 과학으로 무장한 근대 국민국가의 권위가 빛을 발하게 되리라는 점에서, 고전적인 탐정 형상은 아무래도 껴름칙한 것이다. 결국 탐정은 자신을 해체하고 파멸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5. 나오는 말

위에서 언급한대로, ‘청년’과 ‘탐정’은 국민국가의 근대적 주체로 이미지화된 존재이자, 근대적 주체의 형성을 위한 과학적·합리적 사고의 모델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각국이 처한 시대적 상황은 작가들로 하여금 탐정을 그와 같은 단순하고 평면적인 인물이 아닌 입체적이고 다채로운 인물로 그려내도록 이끌었다. 이에 따라 한중일 삼국에서 등장한 ‘청년 탐정’들은 ‘탐정’ 특유의 합리적·과학적·실증적 사고와 태도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해당 시대와 사회의 상황이나 분위기를 반영하여 이중적이고 복잡한 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본론에서 서술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동아시아에

서 탐정소설의 창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1920년대로, 일본의 란포와 중국의 청샤오칭은 이 시기 탐정소설 창작을 대표하는 작가라 할 수 있다. 청샤오칭의 소설 속 '휘쌍'은 비록 '청년 탐정'이라 칭하기는 어렵지만, 5.4신문화운동 시기의 계몽주의와 민족주의, 과학 정신을 대변하는 지식인 영웅으로 등장한다. 반면 1920·30년대의 란포와 중국의 루단안, 식민지 조선의 채만식, 김내성 등은 좀 더 복잡한 성격을 띤 '청년 탐정' 인물을 작품 속에 등장시켰다. 그들에게 탐정 활동은 여전히 과학과 이성에 근거한 근대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동기는 국가의 호명에 부응하기보다는 그것을 위반하거나 넘어서는 요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각국의 독특성에 주목해보자면, 그러한 요소들은 란포의 작품에서 권태와 불안의 심리로, 루단안의 작품에서 유희와 일상화로, 채만식과 김내성의 소설에서는 무기력과 자포자기적 자기해체로 나타난다.

이처럼 한중일 삼국의 탐정소설에 등장하는 '청년 탐정'의 캐릭터를 통해, 본 연구자는 근대 동아시아 문화 상황의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동아시아의 근대 문화는 단순화시켜 이해할 수 없는 다채로운 면모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서구 근대성의 영향 속에서 출발했지만, 각 국가와 사회의 처지와 맥락 속에서 다양하게 굴절되고 변형되었다. 아울러 동아시아 근대 문화는 일면 근대 국민국가 통치성(governmentality)의 기획에 따라 조성되지만, 다른 일면 아래로부터 분출되는 대중 인민의 다양한 정념과 요구, 그리고 이를 관찰하여 작품 안에 반영하는 작가들의 고민에 의해 조성된다.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 근대를 수놓은 다양한 문화적 산물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그 안에 깃든 의미들을 여러 각도와 층차에서 비교 분석하는 일은 한중일 삼국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로 여겨진다.

參考文獻

- 계정민 지음, 『범죄소설의 계보학』, 고양: 소나무, 2018년.
- 김내성, 『김내성문학전집 1[e-book]』, 누리미디어, 2015년.
- 김희경, 「‘상상된’ 탐정과 ‘정탐되는’ 식민도시의 민낯—김내성의 장편소설 『마인』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3권 4호, 2017년.
- 대중서사장르연구회 지음,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3. 추리물』, 서울: 이론과 실천, 2011.
- 마쓰야마 이와오 지음, 김지선 외 옮김, 『란포와 도쿄』, 서울: 케포이북스, 2019년.
- 박은혜, 「청샤오칭(程小青)의 탐정소설론 연구」, 『중국학연구』 제76집, 2016.
- 박은혜·박민호, 「중국의 셜록 홈스 시리즈 수용과 청샤오칭 탐정소설 속 ‘휘쌍’ 캐릭터 연구」, 『중국문학연구』, 2017. 5.
- 소영현, 「청년과 근대—『少年』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6권 11호, 2005년.
- 송인재, 「초기 『신청년』에서 전개된 청년 담론의 기원과 성격」, 『인문과학』 제45집.
- 송인정, 「탐정소설론」(1993), 조성면 편, 『한국 근대대중소설 비평론』, 태화사, 1997.
- 에도가와 란포 지음, 『아케치 : D언덕 살인사건[e-book]』, 프리디우스, 2025년.
- 이기훈 지음, 『청년아 우리 청년아—근대, 청년을 호명하다』, 파주: 돌베개, 2014년.
- 이에나가 사부로 엮음, 『근대 일본 사상사』, 서울: 소명출판, 2006.
- 천두슈·후스 외 지음, 김수연 편역, 『신청년의 신문학론』, 파주: 한길사, 2012년.
- 최애순, 「1930년대 탐정의 의미 규명과 탐정소설의 특성 연구」, 『동양학』 제24집, 2007.

한국근대문학관, 『한국의 탐정들』, 파주: 그린비, 2022년.

陆澹安 著, 『李飞探案集』, 北京: 北京联合出版公司, 2021年.

范伯群, 『中国近现代通俗文学史』(上卷), 南京: 江苏教育出版社, 2010.

中国现代文学馆 编, 『程小青代表作: 血手印』, 北京: 华夏出版社, 2011.

池田智恵, 「1920年代における探偵小説創作の黎明—近代中国と日本の「雑誌空間」を通じ」, 『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第4号, 2011. 3.

Abstract

Modern East Asian Detective Fiction and the Emergence of the Young Detective

Park Eun-hye · Park Min-ho

The figures of the 'Youth' and the 'Detective' were imaged as modern subjects of the nation-state and presented as models of scientific and rational thinking for the formation of such subjects. However, the specific historical contexts faced by East Asian countries led authors to portray detectives not as simple, flat characters, but as three-dimensional and multifaceted figures. Consequently, the 'youth detectives' appearing in Korea, China, and Japan exhibit the rational, scientific, and empirical attitudes characteristic of detectives, while simultaneously appearing as dualistic and complex individuals who reflect the unique atmosphere and circumstances of their respective eras and societies.

The period when the creation of detective fiction flourished in East Asia was the 1920s and 30s. Authors such as Edogawa Ranpo in Japan, Lu Dan'an in China, and Chae Man-sik and Kim Nae-seong in colonial Korea introduced 'youth detective' characters with dualistic and complex personalities. For them, detective work still embodied modern ideologies based on science and reason; however, their motivations revealed elements that violated or transcended the 'interpellation' (calling) of the state. Looking at the distinctiveness of each country, these elements manifested as psychologies of boredom and anxiety in Ranpo's works, playfulness and routinization in Lu Dan'an's, and lethargy and self-destructive self-disintegration in the novels of Chae Man-sik and Kim Nae-seong.

Key words : Modern East Asia, Detective Fiction, Young Detective, Modernity, Enlightenment, Colonialism

투 고 일 : 2026. 1. 10. / 심 사 일 : 2026. 1. 15.~ 2026. 2. 15. / 게재확정일 : 2026. 2. 20.

